

# 어디에서나 꽃을 피우는 욕심쟁이 디자이너 윤다혜 입니다.

## 나의 첫 꽃봉오리

처음부터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좋아하는 것을 심 없이 꾸준하게 즐기다 보니 어느새 당연한 길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찾아 그리던 어린 날의 저는 동네 화실 앞을 매일 서성였다고 합니다.  
우연히 원장님 눈에 띄어 들어간 화실에서 처음으로 유화 물감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덟 살, 유화 물감 냄새, 아그리파 석고상... 얼마나 바랐던지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기에는 너무 어렸던 날,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첫 꽃봉오리가 피었습니다.

## 꽃처럼 물들이다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리며 일찍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빛이 필요한 곳만 밝게 표현한다고 해서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함께 밝혀주었을 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빛이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나를 위한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가진 것을 나누고 도울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는 입시 미술학원 디자인 강사로 일을 하면서 더욱 확고해진 저의 가치관입니다.  
입시에 필요한 그림을 지도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며  
고민을 상담하고 다시 기운을 낼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은 항상 저의 몫이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도 세심하게 관심 가지고 기억하는 특유의 친화력,  
그리고 야무진 지도력을 인정받아 향후 전임 강사 자리를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고 공감할 때 특히 빛나는 사람,  
혼자가 아닌 함께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흔들리지 않는 꽃

강한 자신감, 빠른 적응력과 무서운 습득력.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목표를 두고 게으름 피우는 것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평소 방 문을 나설 때에도 동선과 순서를 먼저 생각할 만큼 계획에 익숙한 저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해나가는 과정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부터 커다란 목표까지, 매 순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둘, 만족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항상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더 잘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일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누구보다 믿고 있기에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한 번 더 나아지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셋, 매사에 신중하며 깊이 생각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생각이 많고 또 이를 즐길 줄 알기에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 내 것으로 만들어내고 맙니다.  
또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강한 자신감, 빠른 적응력과 무서운 습득력. 원하는 바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해내는 끈기로 어디에서나 흔들리지 않는 꽃을 피워내겠습니다.

## 꽃을 피우는 자리

잠에 들기 전 마주한 벽지에 작은 점이라도 보이는 날에는 종종 잠을 설치곤 합니다.  
끝없는 호기심과 의문, 작은 것 하나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은  
디자인을 대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작은 것이 틀어지면 커다란 것 또한 완전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티가 나지 않는다고 가볍게 여기기보다 그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다루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  
그것이 제가 디자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타고난 감성과 함께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디자인에 대한 욕심으로 처음 퍼블리싱 공부를 시작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하였습니다.  
낯선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과 이를 이용해 컴퓨터와 대화하는 방법은  
항상 제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중시하시던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디자인과 프로그래밍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공부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가진 장점을 이용해 한 자리에 머물기보다  
다양한 분야에 꾸준히 관심가지고 개발하는 욕심쟁이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